

한국어와 몽골어 어휘 비교 고찰

An Investigation Comparing Korean and Mongolian Lexicons

韓国語とモンゴル語の語彙の比較考察

PARK Hyun kuk

朴 炫 国

개 요

이 글에서는 우리말 생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몽골어를 비교했다. 한반도와 몽골은 고려시대에 중국 원나라의 다툼과 교류의 역사가 있었다. 그 이전에도 교류의 흔적이 있고, 그 이후 문물을 통해서 전해온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정착된 경우도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그런 예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고려 말 원(元) 나라의 대고려 속국정책(對高麗屬國政策)에 따라 원나라·고려의 왕실이 통혼(通婚)을 하고,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실에 들어오면서 몽골 풍습과 몽골어가 사용되었다. 이후 조선에 이어져 궁중용어가 된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말들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말은 시대에 따르고, 지역이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발음 기호를 적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글에서 사용된 어휘는 대부분 네이버 몽골어 사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어휘는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자연물, 때, 몸, 친척명, 숫자, 방향, 음식물, 복장, 일, 색, 동물, 운동, 도구, 공간, 부사어,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키워드 : 몽골어, 알타이어족, 한국어, 일본어, 어휘

Abstract

Over the years, through thorough research, languages have been grouped into language families. The languages are not be perfectly similar to one another but similar affiliations define the groupings of each language family. Although the debate has not been concluded, the argument that the Korean language is a part of the Altaic language family holds dominance. There are those that disagree but this is not absolute. The argument changes depending on the researcher's perspective and which aspect is emphasized. Within the Altaic language family, there are those who distinguish the Korean language and the Japanese language. This shows how much opinions clash. This research paper compares the Mongolian language and the Korean language with a focus on basic everyday lexicon. The Korean peninsula and Mongolia share a history of war and

communication with relation to the Chinese Yuan Dynasty during the Goryeo Dynasty. Some names that crossed over from Mongolia through cultural exchange during that time are still used in Korea today. The majority of these names can be found on Jeju Island. Towards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following orders as a subject state of the Yuan Dynasty, a princess from Yuan married the king of Goryeo. With this marriage, Mongolian customs and language started being practiced and used in Goryeo. In the following Joseon dynasty, there was a period when the Mongolian language was used in the Royal Court. This research documents the classification and investigation on simple words that are used in everyday life. There were difficulties in selecting the target comparison and in writing out phonetic symbols since words evolve over time and pronunciations differ depending on region and individuals. Most of the lexicons in this research were investigated using the Naver Mongolian Dictionary.

Key words : Mongolian language, the Altaic (family of) languages, Korean language, Japanese language, lexicon

概 要

これまでの多くの研究により言語はいくつかの語族に分類されている。完全に一致するわけではないが、似たような系列をまとめて語族に分けられる。まだ結論に至っていないが、韓国語はアルタイ語族に属するという意見が優勢である。反論もあるが、絶対的だとも言えない。つまり、研究者の立場や言語のどのような側面を強調するかによって主張が異なる。アルタイ語族の中でも韓国語と日本語は区別して表示することもある。それだけ多くの意見が対立しているのだ。本稿では韓国語の生活基本語彙を中心にモンゴル語と比較した。韓半島とモンゴルは高麗時代に中国・元の争いと交流の歴史がある。そのため、文物を通じて伝えられた名前が今もそのまま定着している場合もある。特に、済州道で上述した例をよく見かける。高麗末期、元の高麗属国政策に従って元・高麗の王室が通婚し、元の王女が高麗王室に入ってからモンゴルの風習とモンゴル語が使われた。その後、朝鮮に続き宮廷用語になったケースもある。本稿では生活で使用する簡単な言葉をいくつかに分けた。言葉は時代によって、地域や個人差があるため、比較対象を選定して発音記号を書くのに困難をした。本稿で使用した語彙の多くがネイバー、モンゴル語辞典を中心に調べた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モンゴル語、アルタイ語族、韓国語、日本語、語彙

1. 머리말

그 동안 많은 연구에 따라서 언어는 몇 가지 어족으로 나뉘어졌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계열을 묶어서 어족으로 나누었다.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우리말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록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연구자의 입장이나 언어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장을 말한다. 알타이 어족 가운데서도 우리말과 일본말은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기도 한다. 그만큼 여러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말 생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몽골어를 비교해보았다. 한반도와 몽골은 고려시대에 중국 원나라의 다툼과 교류의 역사가 있었다. 그 때 문물을 통해서 전해온 이름이 지금도 그대

로 정착된 경우도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그런 예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고려 말 원(元) 나라의 대고려 속국정책(對高麗屬國政策)에 따라 원나라·고려의 왕실이 통혼(通婚)을 하고,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실에 들어오면서 몽골 풍습과 몽골어가 사용되었다. 이후 조선에 이어져 궁중용어가 된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말들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말은 시대에 따르고, 지역이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발음 기호를 적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글에서 사용된 어휘는 대부분 네이버 몽골어 사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어휘는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자연물, 때, 몸, 친척명, 숫자, 방향, 음식물, 복장, 일, 색, 동물, 운동, 도구, 공간, 부사어,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2. 본문

1) 자연물

구름(雲): 우르(ҮҮЛ), 우울렌(ҮҮЛЭН),

나무: 머던(МӨДӨН)

눈(雪): 차산(ЦАСАН),

달(月): 사란(САРАН),

땅(土): 셔러언(ШӨРӨӨН),

무지개: 서렁거스, 설런건(СОЛОНГОН)

물(水): 오스(УС),

별(星): 어드(ОД),

비(雨): 버러언(БОРООН),

산(山): 오르(УУЛ),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둘레에 많은 기생화산을 ‘오름’이라고 함, 오름은 ‘오르다’의 명사형.

서리(霜): 하로-, 하루, (ХЯРУУ,),

안개(霧): 마능(МАНАН), 오니아르(УНИАР), 보단그(будан(г)),

이슬(露): 슈테르(ШҮҮДЭР)

하늘(天): 텡게르(ТЭНГЭР),

해(日): 나르(ЖИЛ), 해가 뜨면 새날이 시작된다. ‘나르’는 날과 비슷하다

2) 때, 시간 표현

가을 동안, 가을 내내: 나마르진(намаржин),

가을(秋): 나마르(НАМАР),

겨울(冬): 우월(ӨВӨЛ)

낮(晝): 우드(ҮД), 우드르(ӨДӨР),

밤(夜): 순(ШӨНӨ),

봄 동안: 하와르징(ХАВАРЧ),

봄(春): 하와르(ХАВАР),

아침(朝): 어글러(ӨГЛӨӨ),

여름 동안, 여름 내내: 존진(ЗУНЖИН),

여름(夏): 종(ЗУН),

연(年): 질

월(月): 사르

이른 아침, 새벽(早朝): 어글러구르(ӨГЛӨӨГҮҮР),

저녁 (夕) : 우데쉬 (ҮДЭШ),
참, 한참, 새참, 역참 (驛站) : 잠 (ЗАМ) 길,
하루 (一日) : 두투르

1 월 : 넥사르 (нэгдүгээр сар, нэг сар, хуц сар),
2 월 : 허열사르 (хоёрдугаар сар, хоёр сар, их улаан сар)
3 월 : 고르왕사르 (1.гуравдугаар сар, 2.гурван сар, 3.бага улаан сар)
4 월 : 떠르웡사르 (дөрөвдүгээр сар 2.дөрвөн сар 3.ухаа хагдны сар)
5 월 : 타왕사르 (1.тавдугаар сар, 2.таван сар, 3.хөхөөн дууны сар)
6 월 : 조르강사르 (ургадугаар сар)
7 월 : 떨렁사르 (долдугаар сар)
8 월 : 내능사르 (наймдугаар сар)
9 월 : 유승사르 (есдүгээр сар)
10 월 : 아르공사르 (аравдугаар сар)
11 월 : 아르공네깅사르 (арван нэгдүгээр сар)
12 월 : 아르공허요르사르 (арван хоёрдугаар сар)

3) 몸, 신체

가슴 (胸) : 헨흐택 (ХЭНХДЭГ), 어버르 (ӨВӨР)
귀 (耳), 청력 (聽力) : 치헨 (ЧИХЭН),
눈 (目) : 누텐 (НҮДЭН),
다리 (脚) : 홀 (хөл)
등 (背) : 노로온 (НУРУУ)
머리 (頭) : 타르히 (ТАРХИ), 테르궁 (ТЭРГҮҮН),
머리카락 (髮) : 우스 (ҮС),
목 (首) : 허얼러 (ХООЛОЙ), 후주 (ХҮЗҮҮ)
몸 : 비 (бие)
무릎 (膝) : 읍득 (өвдөг)
발 (足) : 홀 (ХӨЛ),
발바닥 : 타우해 (ТАВХАЙ),
배 (お腹), 복부 : 게데센 (гэдэс),
뺨, 볼 (頰) : 하차르 (ХАЦАР),
손 (手), 팔 (腕) : 가르 (ГАР, гар),,
손가락 (指), 발가락 (足指) : 호로온 (ХУРУУН),
어깨 (肩) : 무르 (МӨР)
얼굴 (顔) : 누르 (НҮҮР), 웅경 (ӨНГӨН), 탈
오른손 : 바롱 - 가르 (баруун гар), 오늘쪽은 바른 손이라는 말과 비슷하다.
왼손 : 보로 가르 (буруу гар)
이, 이빨 (齒) : 슈들레흐 (ШҮДЛЭХ), 슈드 (шүд),
이마 (額) : 도흐 (ДУХ), 마그내 (МАГНАЙ),
입 (口) : 아마크 (ам (ак)), 한 입의 : 움흐 (ҮМХ),
입술 (脣) : 오톨 (УРУУЛ),
젖 : 몸 (МӨӨМ), 젖을 중심으로 몸통, 몸둥아리와 비슷하다.

코 (鼻) : 하마르 (ХАМАР), 동물주둥이, 코 : 헌서르 (ХОНШООР),,
턱 (顎) : 에루운 (ЭРҮҮН), 흙속 (ХӨМСӨГ),
허리 (腰) : 부셀히 (БҮСЭЛХИЙ), 벨호스 (бэлхуус)

4) 가족, 친척 이름

고모 : 아와 에그치 (авга эгч)
누나, 언니 : 에그치 (ЭГЧ),
동생 : 두 (дүү)
딸, 암컷, 소녀 : 어hing (охин)
마마, 왕실의 높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마누라, 마노라, 마마와 비슷한 말로 쓰이다가 뒤에 마
마보다 한 급 아래 호칭으로 쓰였다. 뒤에 늙은 부인 또는 아내를 낮춰 일컫는 말로 전락했다.
부인, 아내 : 게르기 (ГЭРГИЙ), 에흐네르 (эхнэр), 아우가 (АВГАЙ)
사돈 (査頓) : 호드 (худ), 사돈 (худ), 혼인한 두 집의 부모 혹은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 부르
는 말.
삼촌 : 아와 아흐 (авга ах)
아들 : 후 (ХҮҮ), 노간 (НУГАН), 허부운 (ХӨВҮҮН)
아버지, 아빠 : 아우 (ААВ), 에ček (ЭЦЭГ)
어머니, 엄마 : 이지 (ИЖИЙ), 에 (에) 찌 (ЭЭЖ)
외삼촌 : 나가치 (нагац)
우리 : 비덴 (БИДЭН), игид
이모 : 나가치 에그치 (нагац эгч)
조카 : 제어hing (зээ охин)
할머니 : 에멕 (ЭМЭГ), 에메 (ЭМЭЭ), 어머니를 뜻하는 어미와 비슷하다.
할아버지 : 우브경 (ӨВГӨН), 우웨 (өвөө)
형, 오빠 : 아흐 (АХ), 형수 : 베르깡 (БЭРГЭН)
형제 : 하흐두 (ах дүү)

5) 숫자

하나 : 벱 (нэг, нэгдмэл)
둘 : 오스 (ГАР)
셋 : 고흘 (гурав)
넷 : 두르브 (ДӨРӨВ)
다섯 : 타옥 (ТАВАН), 타왕 (ТАВАН), 타옥, 타브
여섯 : 조르가 (ЗУРГААН)
일곱 : 덜러 (ДОЛООН)
여덟 : 냄 (НАЙМАН)
아홉 : 유스 (ЕСӨН)
열 : 아릅, 아르브 (арав)
백 : 조운 (ЗУУН)
천 : 만간 (МЯНГАН)
만 : 하스 (ХАС)
억 : 둔추르 (ДҮНЧҮҮР)

6) 방향 (方向)

남쪽 : 오락샤 (урагшаа), 우른 (ӨМНӨ), 남쪽으로 가다 : 오락쉴라흐 (УРАГШЛАХ)
뒤쪽 : 아르드 (АРД), 차안 (ЦААНА), 허이트히 (ХОЙТХИ), AP
동쪽 : 더른 (ДОРНО), 더리어 (дорио),
북쪽 : 아르드 (АРД), 오마르 (УМАР), 오마르히 (УМАРХИ)
서쪽 : 바롱 (БАРУУН), 바로가르 (баруугаар), 우른 (ӨРНӨ), 어르너드 (ӨРНӨД),
아래쪽 : 더셔 (ДООШОО), 더드 (ДООД), 더고르 (ДООГУУР), 톤트라흐 (ТУНТРАХ)
앞쪽 : 오르뜨 (УРД), 파사드 (фасад), 남쪽
옆쪽 : 하조가르히 (ХАЖУУГААРХИ)
오른쪽 : 바롱 (БАРУУН), 서쪽, 바른쪽으로 ; 바른쪽으로 (Баруунзугоор)
왼쪽 : 보로 (буру), зүүн тал, 왼쪽으로 ; 운쪽으로 (Зүүнзугоор)
위쪽 : 테구르흐 (ДЭЭГҮҮРХ)
밖 : 가뜨 (гадна), гадна тал, гадаа
속, 안 : 더터르 (дотор), 더토르 (ДОТУУР), 샨즈 (ШАНЗ)

7) 음식물

고기 : 마한, 마흐 (МАХАН), 마흐 (мах), 여러 짐승의 고기
과자 : 암트통 (ЖИГНЭМЭГ)
돼지고기 : 가하잉 마흐 (гахайн мах)
마늘 : 만끼르 (manggir), 사르미스 (САРМИС)
마유주 : 덕시더흐 (ДОГШДОХ)
말고기 : 아토니마흐 (адууны мах)
먹거리, 식량 : 훈센 (ХҮНСЭН), 타르칙 (ТАРЧИГ)
물 : 오스 (УС)
물고기, 생선 : 자가산 (ЗАГАСАН)
밥, 쌀 : 보타 (БУДАА), 밥이 있는 (형용사) : 허얼태 (ХООЛТОЙ)
설렁탕 (соллонтан), 고기를 맹물에 끓이는 몽골 요리인 슈루, 술루
소고기 : 우헤르마흐 (үхэр мах), хонины мах
술 : 사르하드 (САРХАД), 아리흐 (АРХИ)
식사 : 수라 (хааны зоог), 술런, 수라상, 진지상
양고기 : 허니마흐 (хонь мах)
염소고기 : (ямааны мах) 쇠
요구르트 : 타락 (ТАРАГ, иогурт)
우유 : 수운 (СҮҮН), 사알 (СААЛЬ)
우유죽 : 카쉬 (КААШ)
음식, 요리 : 허얼 (хоол)

8) 복장

겉옷 : (гадуур ЦАМЦ) 여성용 겉옷 : 다신즈 (ДААШИНЗ), 실내용겉옷 : 할라드 (ХАЛААД)
구두 : 고탈 (ГУТАЛ), ботинк,
두루마기, 주막의 (周莫衣), 주차의 (周遮衣), 주의 (周衣) : 쿠루막치
모자 : 말가이, 마흐레 (МАЛГАЙ, малгай), 홀가우치 (ХУЛГАВЧ)
바지, 아래옷 : (доогуур хувцас)

속옷 : (дотуур хувцас)

양말 : 어임스 (ОЙМС)

옷 : 흠차스 (ХУВЦАС), ДААЛИН,

옷도리, 저고리 : 저득러흐 (ЗОДОГЛОХ), 지렉 (ЖИЙРЭГ), 저고리의 저와 비슷하다.

9) 일, 노동

다루가치, 원 나라 행정, 군사면에서 중요한 관직이름. 진압하다는 뜻의 몽골어 다루에 가와 치를 붙여서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 것. 진수자 (鎭守者), 단사관 (斷事官), 고려 때 1231년 배치되었다가 충렬왕 때 철수.

목자 : 태우리, 몽골어, 모으다

목축 : 하리올락 (ХАРИУЛГА), 목축하다 : 하리올라흐 (ХАРИУЛАХ), 어터롤러흐 (ОТОРЛОХ)

사냥, 수렵 : 앙 (АН), 아그노르 (АГНУУР), 앙은 사냥의 냥과 비슷함.

사랑하다 : 해를라흐 (ХАЙРЛАХ)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합해서 이르는 말. 몽골어 사병을 뜻하는 가베치의 가베는 활을 말하고, 치는 사람을 뜻함. 가베치는 활을 잘 쏘는 사람 즉 궁사 (弓士) 를 뜻함. 가베치를 한자로 옮겨서 가별초 (家別抄) 혹은 가별초 (加別抄) 로 적었을 것으로 보임

선생님, 박수무당, 우두머리, 지도자 : 박시 (БАГШ), 타 (ТА), 탄 (ТАН), 패 (ГУАЙ), 가르치다 : 박실라흐 (БАГШЛАХ), 박수 무당은 남자 무당을 말한다. 무당이 마을이나 사회에서 지도자나 선생 역할을 해왔다.

소녀, 동녀 (童女) : 부스기 (БҮСГҮЙ), 무수리, 수사 (水賜), 수사이 (水賜伊), 직급이 낮은 궁녀, 고려, 조선 시대 궁중에서 주로 청소 일이나 잔심부름, 시중을 드는 계집종을 수사라고도 함.

시구르치 (速古赤) 몽골어로 왕의 옆에서 술이나 털이개로 의복을 깨끗하게 털어주던 사람

시바우치 [時波赤 (시파적)], 몽골어로 매를 기르는 사람. 매를 기르는 기술자는 1283년 (충렬왕 9) 처음으로 응방도감 (鷹坊都監) 을 설치하면서 두었고, 관직으로 정한 것은 1371년 (공민왕 20).

역참 (驛站), 참치 (站赤) : 몽골어로 노 (路) 를 관장하는 자 (者), 즉 역전 (驛傳) 의 뜻

용변을 보다 : 후레흐 (хүрэххүрэх), 오줌 마렵다. 마렵다, 큰말, 작은말, 대변과 소변, 말보고 싶다 : 모리하라레, 용변을 보고싶다

장군, 아기바톨 (중세 한국어 용비어천가), 영웅 : 바타르 (БААТАР), 바가투르 (bagatu), 바투르, 조라치 [吹螺赤], 몽골어로 하복을 이르는 말. 고려 때 몽골 침입 이후 쓰이던 조라치는 병관 대정의 산적인 숙위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말. 조선시대 나각을 불던 군악수. 조선시대 나각을 불던 군악수, 구군악대의 나각수.

홀치, 고려 후기 왕실을 호위하는 일을 담당하던 군사 조직. 화살통을 뜻하는 몽골어 표기인 홀 (gor, 忽) 과 사람을 뜻하는 몽골어 치 (ei, 赤) 를 합친 말로서 홀지, 화리치로도 불렸다. 헐치 (ХОЛЧ) 는 형용사로 선구자적인 뜻이다.

10) 색

갈색 : 후렝 (хүрэн)

노랑 : 샤르 (шар)

보라, 보로, 야강 (нил ягаан)

분홍색 : 야강 (ягаан, ЯГААН)

빨강, 적색 : 울란 (улан)

자주색, 보라 : ЯГААН хүрэн

주황색 : улбар шар

초록 : 너거양 (НОГООН)

파랑 : 후흐 (хөх)

흰색 : 망홍 (МАНХАН), 흰색이 섞인 말털 : 자갈 (ЗАГАЛ)

11) 동물

개 : 너허이 (НОХОЙ)

다람쥐 : 주르헤우치 (ЗҮРХЭВЧ), 줄무늬다람쥐 : 지르흐 (ЖИРХ), 땅다람쥐 : 조람 (ЗУРАМ)

닭 : 타하 (тахиа),

말 : 뫼르, 머르 (МОРЬ, МОРИН), 숫말 : 머르 (морь), 말 (馬) 이라는 뜻이다. 가라말 (털빛이 검은 말), 간자말 (이마와 뺨이 흰 말), 고라말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런 말), 공골말 (털빛이 누런 말), 구렁말 (털빛이 밤색인 말), 부루말 (털빛이 흰 말), 부절따말 (갈기가 검은 절따말), 서라말 (흰 바탕에 거뭇한 점이 섞인 말), 절따말 (털빛이 붉은 말) ; ‘좁말 (조랑말, 몸집이 작은 말), 역말 (驛馬, 역참 (驛站) 에 갖추어 두고 관원이 이용하던 말)

매 : 나칭 (НАЧИН), 하르차악 (ХАРЦАГА)

보라매 (앞가슴에 난 털이 담홍색, 즉 보랏빛이라 붙여진 이름) : 보로 (boro)

사람 : 치 (хүн), 너, 흥, 장사치, 벼슬아치, 나무치 (뱃사공), 갓바치 (가족신을 만드는 사람), 흥정바치 (흥정바지), 잠치 등에 붙은 치 역시 사람이란 뜻, 잠은 길이라는 뜻이고, 잠치는 길 안 내인, 역장이라는 말, 고려시대 조라치 (詔羅赤) 는 주인의 말고삐를 잡은 사람이나 하인, 종, 몽골어 조로치 (jorochi) 는 고삐를 잡은 사람에서 차용, 취라치는 군대에서 소리를 불던 취타수 (吹打手), 취라군 (吹螺軍).

새, 날짐승 : 쇼보온 (ШУВУУН), 지구르텐 (ЖИГҮҮРТЭН)

소 : 우헤르 (үхэр),

야크 : 사를락 (САРЛАГ), 새끼야크 : 터래 (ТОРОЙ)

양 : 현 (хонь)

얼룩무늬말 (제주도) : 알락 머르 (АЛАГ МОРЬ)

염소 : 야마 (ЯМААН)

조랑말 (주로 제주도에 사는 몸집이 작은 말) : 조로말 (жороо морь)

쥐 : 훌강 (ХУЛГАНА)

12) 운동

가다 : 가라흐 (ГАРАХ), 야와흐 (ЯВАХ), 아왈차흐 (АВАЛЦАХ), 어치흐 (ОЧИХ)

걷다 : 기쉬게흐 (ГИШГЭХ), 샴라흐 (ШАМЛАХ), 알하흐 (АЛХАХ), 야브갈라흐 (ЯВГАЛАХ)

날다 : 히스게흐 (ХИЙСГЭХ), 뜨다 (ХӨӨРӨХ)

달리다, 뛰다 : 다우히흐 (ДАВХИХ), 지리흐 (ЖИРИЙХ)

마시다 : 오흐 (УУХ), 톡터흐 (ТОГТООХ)

말타기 : 머르석 (МОРЬСОГ)

말타다 : 머릴러흐 (МОРИЛОХ)

말하다 : 야리흐 (ярих), 우치흐 (ӨЧИХ), 도가라흐 (ДУУГАРАХ), 헬레흐 (ХЭЛЭХ)

먹다 : 이데실레흐 (ИДЭШЛЭХ), 이데흐 (ИДЭХ), 헤웨흐 (ХЭВЭХ), 허얼러흐 (ХООЛЛОХ)

씨름, 스모 (相撲) : 베릴당 (БАРИЛДААН), 시렐, 씨름 (Сирым), 각저 (角低), 버흐 (Бөх), 상박 (相撲) : 바릴다흐 ((Барилдах)

오다 : 머릴러흐 (МОРИЛОХ), 압치라흐 (АВЧРАХ), 이레흐 (ирэх)

올다 : 곤가나흐 (ГУНГАНАХ), 오일라흐 (УЙЛАХ), 허시히러흐 (ХОШХИРОХ), УГИЛАХ
 옷다 : 이네흐 (ИНЭЭХ), 마랄자흐 (МЯРАЛЗАХ),
 하다, 만들다 : 히흐 (ХИЙХ), 율데흐 (ҮЙЛДЭХ), 암조올라흐 (АМЖУУЛАХ), 비엘로올레흐 (биелуулэх)

13) 도구

가야금, 고토 (琴), (현악기) : 야탁 (ЯТГА), 거문고 : 리르 (лир)
 바가지, 두레박 : 허버 (ХОВОО), (제주도 : 물허벅 - 물을 담아서 등에 지고 운반할 때 사용)
 사발 (沙鉢), 사하치 [砂鉢; サハチ], 완 (碗) : 사바 (ХУЛ) ; 그릇
 오늬, 오뇌, 호노 : 화살 머리를 활시위에 끼도록 에어 낸 부분을 말하는 몽골어, 활시위에 끼고 쏘는 화살 윗부분으로 참싸리로 만들
 인두 (옷깃에 동정을 달 때 사용하는 다림 도구) : 일루르 (ИЛҮҮР), 옷 주름을 펴는 도구로 다리미는 옷 전체를 다린다.
 종이 : 차아스 (ЦААСАН)
 책 : 넘 (НОМ), 책장을 넘기다와 비슷.
 쇠, 철, 테츠 (鐵: テツ) : 투므를럭 (ТӨМӨРЛӨГ), 테므르
 칼, 호쥔 (包丁^{ほうちょう}) : 호딱 (ХУТГА)

14) 공간

방 : 타살가 (ТАСАЛГАА), 우리 (ӨРӨӨ), 카메라 (камера)
 식당 : 관츠 (ГУАНЗ), (우리말 광 : 부엌 부근에서 물건을 저장해두거나 도구를 두는 창고라고 뜻)
 집 : 게르 (ГЭР), 우르거 (ӨРГӨӨ), 애일 (АЙЛ)

15) 부사어

가장 : 함기잉 (ХАМГИЙН), 어트경 (ОТГОН)
 과연 : 차나르 (ЧАНАР)
 그러나 : 겍치 (ГЭВЧ), 에텔 (этэл), 테게우치 (тэгэвч), 차시귀 (цаашгүй)
 그런데 : 하링 (ХАРИН),
 그리고 : 테게드 (тэгээд)
 많이 : 올트 (ҮЛТ), 전드 (ЗӨНД), 아히오 (АХИУ), 오치르귀 (УЧИРГҮЙ)
 매우 : 쉐 (ЦЭЛ), 텡두 (ДЭНДҮҮ), 올렘지 (ҮЛЭМЖ), 이헤드 (ИХЭД), 넌그 (нэн)
 이미 : 네겐트 (НЭГЭНТ), 헤띠네 (ХЭДИЙНЭЭ),
 빨리 : 호르툽, 호르틀라흐 (ХҮРДЛАХ), 보쇼흥 (БУШУУХАН), 투르갱 (ТҮРГЭН)
 조금 : 짜흥 (ЖААХАН), 아래 (АРАЙ), 아즈나흐 (АЗНАХ), 자-알 (ЖААЛ)

16) 기타

꼭두각시, 인형극에 나오는 각시인형을 이른다. 꼭두는 몽골어 괴뢰의 얼굴 가면을 뜻하는 곡도 (godok), 고도르 (godor, 곽독, : 郭秃) 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곡도에 각시가 결합하여 등장 인물이 되었다. 보통 꼭두각시는 자신의 뜻이나 주장이 없이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놀아나는 짓대없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오랑개, 몽골족으로 헨티와 흥안령 산맥 등에 살던 삼림종족 오리양히 (Oriyanghai) 족을 말한다. 원래 한 종족 이름이었지만 뒤에 보통명사가 되어 야만적이고 미개한 종족을 멸시하는 말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기록에는 올랑합 (兀良合), 알랑개 (韓郎改), 올적합 (兀狄合) 등으

로 적었다.

환보, 관중 - 송파산대놀이 등에서 나오는 먹중 가운데 우두머리. 몽골 라마교 사원에서 주지승을 환바 (Qanba) 라고 한다. 고대어는 환보 (Qanbo) 이다. 환바는 완바와 비슷한다.

호르똥 (ХОРДЛАН), 빨리라는 뜻이다. 빨리 서두르며 허둥대는 모습을 표현하는 헐레벌떡과 비슷하다.

3. 마무리

한반도에 있었던 고려는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원나라는 몽고 출신 칭기스칸이 세웠고, 몽고와 고려는 교류가 빈번했다. 고려는 원을 적극 방문하거나 왕족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고려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영향을 입었다. 그 후 우리말 속에는 몽고말의 영향이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원래 같은 말이었는지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다만 초원 생활의 목축이나 짐승 관련 문화나 말은 몽고 영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연구 결과 우리말과 여러 알타이어 사이에는 기본 언어의 유사성이 비교적 적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기초 단어를 소개하고, 우리말과 몽고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말은 늘 바뀌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시점이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전이나 문헌에 언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았다. 학자나 연구자들 사이에 알타이어족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아직 확실히 풀리지 않았다. 다만 어떤 한 조어 (祖語) 에서 시작되어 분리되고, 각기 바뀌어서 현 지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라지고 바뀌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국어나 일본어를 알타이어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다른 어족이나 독립해서 보아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알타이어계의 언어는 명백하게 만주통구스어파, 몽골어파, 튀르크어파의 언어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어파에 속하는 언어는 서로 간에 매우 가깝다. 각 어파에 속하는 언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만주통구스어파 : 어원어 (Ewen), 어원키어 (Ewenki), 솔론어 (Solon), 네기달어 (Negidal), 나나이어 (Nanai), 윌타어 (Uilta), 울치어 (Ulchi), 우디허어 (Udihe), 오로치어 (Orochi), 만주어 (Manchu), 시베어 (Sibe)

몽골어파 : 다고르어 (Dagur), 몽구오르어 (Monguor), 보난어 (Bonan), 캉자어 (Kangjia), 동샹어 (Dongxiang), 동부요고르어 (East Yugur), 부리아트어 (Buriat), 몽골어 (Mongolian), 칼미크어 (Kalmyk-Oirat), 모골어 (Moghol)

튀르크어파 : 추바시어 (Chuvash), 할라지어 (Khalaj), 터키어 (Turkish), 가가우즈어 (Gagauz), 아제르바이잔어 (Azerbaijani), 투르크멘어 (Turkmen), 호라산 튀르크어 (Khorasan Turkish), 카시카이어 (Qashqa'i), 아프샤르어 (Afshar), 아이날루어 (Aynallu), 살라르어 (Salar), 위구르어 (Uyghur), 우즈베크어 (Uzbek), 크림 타타르어 (Crimean Tatar), 우룸어 (Urum), 카라임어 (Karaim), 카라차이 발카르어 (Karachai-Balkar), 쿠르크어 (Kumyk), 타타르어 (Tatar), 바시키르어 (Bashkir), 카자흐어 (Kazakh), 카라칼파크어 (Karakalpak), 노가이어 (Nogai), 키르기스어 (Kirghiz), 알타이어 (Altai), 하카스어 (Khakas), 쇼르어 (Shor), 출름 튀르크어 (Chulym Turkish), 투바어 (Tuvan), 토파어 (Tofa), 야쿠트어 (Yakut), 돌간어 (Dolgan), 서부요고르어 (West Yugur), 푸위 키르기스어 (Fuyu Kirghiz)

참고문헌

권재일, 한국어문법론, 태학사, 2014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001 (1983)

김주원·권재일·고동호·김운신·전순환, 『사라져가는 알타이 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2008

몽골유해보편, 蒙語類解補篇, 1790

방언집석 (方言集釋), 1778

이의봉 (李義鳳), 고금석림 (古今釋林) 40 권 20 책, 삼학역어 (三學譯語), 17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알타이조어 [Proto-Altaic Language, 알타이祖語],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